

# 신라 귀족의 사랑과 향가의 일상성\*

신재홍(경원대)

1. 서론
2. 『화랑세기』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
  - 2.1. 사랑의 편폭
  - 2.2. 사랑, 아름다움, 성스러움
  - 2.3. 정절 의식과 ‘큰 사랑’의 이념
3. 신라 귀족 사회의 사랑과 향가
  - 3.1. 내부인의 작품
    - <송사다함가>, <칭조가>
  - 3.2. 외부인의 작품
    - <서동요>, <현화가>, <처용가>
4. 결론

## 1. 서론

『화랑세기』에 기술된 신라 귀족 사회의 사랑의 양상은 우리의 상식과 예측을 훌쩍 뛰어넘는다.<sup>1)</sup> 유교적 전통과 일부일처제에 따른 성 의식에 비추어 본다면, 이 자료에 기술된 사랑은 불륜과 부정, 외설과 난잡이 판치는 형국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라인의 일상적인 삶을 조직하고 움직여 나갔던 성 관련 제도와 관습, 그들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했던 윤리적, 종교적 성 관념들을 알아볼 수 있다.<sup>2)</sup> 당대의 종교와 철학, 관습과 제

\* 이 연구는 2005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1) 이 점이 『화랑세기』의 자료적 가치를 부정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노태돈,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 『역사학보』 147, 역사학회, 1995, 347~349면 참조.)

2) 『화랑세기』의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신라 시대의 일상생활사로 기술된 바 있다.(이종욱,

도, 의식과 정서 등이 얽힌 문화 기술서로 보고 접근할 때, 이 책은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단서들을 내보이는 것이다.

향가는 신라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므로 그 시대의 일상적인 삶과 긴밀히 관련되리라는 점은 당연한 사실이다. 기존의 자료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화랑세기』가 발견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sup>3)</sup> 이 자료가 신라 사회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모두 보여주지는 않으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있는 현존 향가들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안에서나마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당대인의 일상적인 삶의 단면을 드러내어 향가 이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sup>4)</sup>

## 2. 『화랑세기』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

### 2.1. 사랑의 편폭

『화랑세기』에 기술된 사랑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성격면에서 색을 밝히는 인물과 색에 무심한 인물, 방탕한 인물과 개결한 인물이 혼재해 있다. 신분면에서 황제 및 황후의 사랑에서 골품이 없는 낭도, 평민의 사랑까지 널리 퍼져 있다. 제도면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남녀도 있고, 사통으로 점철된 관계도 있으며, 큰 옥사를 초래한 간통 사건도 있다.

얼핏 보아 이 책은 방탕한 사랑의 연속으로 읽혀지기 쉽다. 그러나 저자는 금진, 미실, 숙명, 금륜 등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방탕’, ‘황란’(荒亂) 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 밖의 인물들도 방탕하게 생각되는데 저자는 보통 그러한 듯이 서술하고 있다. 저자와 우리와의 인식상의 차이는 당대와 오늘날의 거리이고, 또 방탕과 보통에 대한 저자의 구분에서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 이종욱, 『화랑』, 휴머니스트, 2003.)

3) 향가 논의에서 『화랑세기』를 주요 자료로 다룬 선구적 연구는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집문당, 1997)이다.

4) 본고는 「미실과 사다함, 송사다함가와 청조가」(『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화랑세기에 나타난 화랑의 이념과 향가」(『거레어문학』 34, 거레어문학회, 2005)와 함께, 『화랑세기』를 통해 향가를 좀더 깊이 이해해 보려는 일련의 시도 중 하나이다.

당대 성 관습과 성 의식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방탕한 사랑을 했던 인물로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이 있다.<sup>5)</sup> 그녀는 법흥제를 섬긴 것 같고, 입종과의 사이에서 숙홀종을 낳았다. 법흥과 입종이 죽은 후 문상으로 물리나와 살다가, 예전에 숙위두상으로서 자신을 섬긴 구리지와 결합하여 토함, 새달, 사다함을 낳았다. 그리고 구리지가 출정한 사이에 그의 용양신 설성과 사통하여 설원을 낳았다. 또한, 동륜태자의 유모로 입궁했다가 사도황후가 해산하는 사이에 진홍제를 모셔 임신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였다. 심지어 그녀는 아들 사다함의 사우(死友)였던 무관과 사통하였다. 이를 고민하던 무관이 궁궐 담을 넘어 도망가려다가 다쳐서 죽고, 그를 애통해하던 사다함도 죽는다. 금진은 사다함을 안고 발을 구르면서 통곡하였다.

효성스런 사다함도 걱정할 정도로 금진의 방탕함이 심했다 하더라도 구리지와의 사랑, 설성과의 사랑은 그 나름의 진실성을 지녔기에 결국 귀족 사회로부터 승인되었고, 사랑의 결실인 자식들은 모두 현달하였다. 토함은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사다함과 설원은 풍월주가 되었으며, 새달은 이화의 첩이 되어 부귀를 누렸다. 방탕한 사랑으로 얻은 자식들일지라도 혈통과 재능으로 인해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미실 역시 방탕한 사랑을 하였다. 그녀는 사다함과 사랑하였고, 세종을 남편으로 둔 다음에도 3대의 황족을 모셨을 뿐더러, 설원을 사신으로 삼고 자기 아우 미생과도 관계를 가졌다. 저자는 미실과 사다함, 세종, 3대의 황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을 하지 않았지만, 설원 및 미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방탕하다고 하였다. 혼전 관계, 정식 혼인, 그리고 황족과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용인되었던 반면, 설원·미생과의 관계는 낭도의 증망을 잃을 만큼 방탕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미실은 스스로 원화가 되어 여론을 억눌러 버렸다. 이로 볼 때, 사회의 여론이 귀족들의 사랑의 일탈을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미실에 반해 그녀의 남편 세종은 절개를 지켰다. 황족에게 성을 상납하

5) 인물의 행적은 모두 『화랑세기』의 기술 내용에 따른 것이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행적 하나하나에 대한 인용은 하지 않았다.

고 인통의 자식을 여럿 낳은 아내 미실의 사회적 역할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종일관 그녀에 대한 절개를 지킨 것이다. 미실이 크게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간하였고, 심지어 미실의 강권에 못 이겨 사도황후와 관계를 갖기까지 하였다. 미실의 방탕과 세종의 절개가 공존하면서 부부 관계가 유지된 점은 당대 사랑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성골 남자의 경우 여러 여자들로부터 색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성관계가 지나쳐 방탕으로 흐른 성골들이 있어 국가적인 분란이 되기도 하였다.

진홍과 사도의 맏아들 동륜태자는 아버지를 모시는 미실과 관계하였다. 미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미생을 시켜 매일 궁궐 밖에 나가 어색(漁色)을 하게 하였다. 동륜은 또한 아버지의 후궁인 보명을 사모하였다. 보명이 허락하지 않자, 장사 몇을 테리고 궁궐 담을 넘어 들어갔다. 당시 보명은 미실과 진홍제의 총애를 다룰 수 없음을 알고 태자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태자가 밤마다 보명궁에 들어갔는데, 7일째 밤에 수종하는 자 없이 혼자 갔다가 큰 개에게 물려 죽었다.

진홍과 사도의 또 다른 아들 금륜은 동륜이 죽은 다음 태자 자리에 올랐다가 진지체가 되었다. 사도황후가 그를 미실과 사통시켜 다른 뜻을 두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옹립한 것이었다. 그런데 금륜은 제(帝)가 되고 나서 호색 방탕하였다. 결국 사도태후가 미실과 함께 여러 세력을 모아서 그를 폐위시켰다.

이와 같이 성골의 남자 중에는 성에 탐닉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인물들도 있었다. 이는 신라 황실이 성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지녔다가 심대한 타격을 입은 사례로서, 당대의 성 관습이 제어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귀족 사회의 성 관습은 성골 및 진골의 절대적, 일방적 권위에 의해 형성된 것인 만큼, 이러한 일탈의 가능성을 늘 지니고 있었다.

한편, 『화랑세기』에는 건실하고 절제된 사랑의 예도 많이 나타난다. 골품의 권위로써 성적 유희를 만끽하더라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을 텐데도 욕망을 절제하여 평정한 상태로 지내거나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간 인물들이 있는 것이다.

보리는 진골 정통을 계승하기 위해 만룡과 혼인하였다. 만룡이 어려 아  
이가 생기지 않아서 침비 후단을 첩으로 삼으라고 권해도 듣지 않았다. 결  
국 진평제의 명으로 후단을 첩으로 삼아 먼저 아들을 얻으니 보리는 자신  
의 과실이라 자책하였다. 후단은 만룡의 아들 낳기를 밤낮으로 기도하였다.  
당시에 공주들은 모두 □신(□臣)을 두었으나 첩들은 정해진 남편이 없었는  
데, 보리의 처와 첩만큼은 두 가지 행실을 하지 않았다.<sup>6)</sup>

처첩 사이도 그렇거니와 보리-만룡의 부부 관계도 매우 건실하였다. 부  
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어려운 낭도들을 구호해 주었다. 만룡은 보리가 조금  
만 아파도 친히 받들어 모셨고, 음식과 의복을 몸소 만들어 바쳤다. 보리는  
그러한 만룡의 정성에 감동하여 다른 여인을 거느리지 않았다. 그는 형 원  
광의 교화를 많이 입어 나중에는 처첩과 함께 불문에 귀의하였다. 그만큼  
그의 지향성이 금욕과 절제에 있었던 바, 불교 신앙에 의해 성적인 절제가  
가능했던 유형의 인물이다.

김유신의 동생 흠순은 보리의 서녀 보단과 혼인하였다. 보리가 총첩을  
많이 두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허락한 것이다. 흠순은 재색과 숙덕을 갖춘  
보단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결정하였다. 국가에 큰일이 있으면 유신은 자  
기집 문을 지나도 들어가지 않았으나, 흠순은 반드시 먼저 집에 가서 보단  
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떠났다. 이러한 흠순에게 보리는 보단의 동생 이단  
까지 시집보냈는데, 형제가 한 남편을 섬기므로 투기하는 기색이 없었다.  
흠순이 집에 있을 때면 두 부인 및 자녀들과 함께 노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았다. 흠순은 기개가 넘치고 활달한 무사였는데, 이처럼 무사의 풍모를  
지니고 미색을 멀리한 풍월주로는 문노, 용춘, 군관 등이 있다.

보중은 음주와 호색을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 미실이 이를 걱정하여  
중실 여자들에게 보중을 유혹하면 상을 주겠다고 할 정도였다. 보중은 시중  
들던 현강을 호림에게 양보하였고, 자기를 사모한 하회를 염장에게 보냈다.

6) 『화랑세기』, 제12세 보리, 時公主等 皆有□臣 妾無定夫 而唯公妻妾獨不二行. 이종욱은 이 문  
장을 잘못 끊어 읽어 당시 공주들에게 정해진 남편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이종욱 역  
주해, 『화랑세기』, 소나무, 1999, 139면 ; 이종욱(2000), 앞의 책, 391~392면) 문장 구성상 본  
문처럼 읽음이 옳은데, ‘□臣’은 아마도 ‘私臣’일 가능성이 높다. 첩에게 일정한 남편이 없었  
다는 것은 호조, 미생, 양도, 임종의 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아내인 양명을 염장과 혼거시키고, 모종과도 관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연 관찰, 동식물의 양육, 음악 연주, 미술 창작 등 선도(仙道)를 닦는 데 몰두한 데에서 연유한 것 같다. 보종의 경우는 선도의 수련에 의해 성적인 절제가 이루어진 유형이다.

이와 같이 풍월주 가운데는 불교 신앙, 무사 기질, 선도 수련 등으로 인해 성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했던 인물들이 있다. 이는 『화랑세기』에 그려진 신라 귀족의 성 생활이 문란한 것으로만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 자료에 기록된 사랑의 양상은 다양한 편폭을 지녀 지금으로서는 낯선 당대의 성 관습에서부터 오늘날에도 상식적으로 수긍할 만한 성 관습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 2.2. 사랑, 아름다움, 성스러움

신라 귀족 사회의 사랑은 성골 남자에게 섹공하는 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섹공의 조건으로는 무엇보다 아름다움이 꼽혔다. 『화랑세기』에는 아름다운 여자와 아름다운 남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개중에는 구체적인 묘사도 있다.

용모가 절묘하여, 풍만하고 도톰함은 옥진을 닮았고 밝고 명랑함은 벽화를 닮았고 아름답고 오묘함은 오도를 닮았으니, 온갖 꽃들의 신령을 모았고 세미인의 정수를 뽑아놓았다고 이를 만하였다. 옥진이 이르기를, “이 우리 아이는 우리 [집안의] 도를 일으킬 만하다.” 하였다.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방법과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sup>7)</sup>

미실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대목이다. 그 내용은 ‘풍만하고 도톰함’(豐厚), ‘밝고 명랑함’(亮明), ‘아름답고 오묘함’(美妙)의 세 가지이다. ‘풍후’는 육체적 특징을, ‘양명’은 표정과 말씨를, ‘미묘’는 풍기는 인상과 분위기를 지칭

7) 『화랑세기』, 제11세 하종, 容兒絕妙 豐厚似玉珍 亮明似碧花 美妙似吾道 可謂鍾百花之神 萃三美之精 玉珍曰 此吾兒 可以興吾道也 不離左右 而教以媚道歌舞.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미실의 아름다움이 옥진에게는 이들이 속한 대원신통을 일으킬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여제, 태후, 황후 등 성골 여자들도 진골 이하의 남자로부터 색공을 받았다. 가령, 여제인 선덕제가 궁중 연회에서 보람에게 은밀히, “네가 사랑하는 아이에 대해 들었는데, 그 아름다움이 과연 어떠하뇨?”라고 말하는 대목에서<sup>8)</sup> 성골 및 진골 여자들의 염색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남자의 아름다움도 여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귀족 사회에서 유명했던 보종의 아름다움에 대해, 미실은 ‘옥같이 반질반질한’(玉膏) 얼굴, ‘붉은 색 연지 같은’(赤脂) 입술, ‘아리따운 빛이 도는’(嬌彩) 눈, ‘정을 끄는 근기가 있는’(情根) 말 등으로 표현하였다.<sup>9)</sup> 외모와 말씨가 아름다움을 재는 기준인 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보종은, “정을 끄는 근기는 여러 갈래이고 아리따운 빛은 속이기 쉽고 붉은 연지나 옥같이 반질거리는 것은 [제] 몸을 보호하는 보배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한다.<sup>10)</sup> 이 말에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선덕제의 물음에 대해, “신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 속에 있나이다.”, “신의 소원은 보람 부처를 위해 죽는 것이고, 보람 부처의 소원은 폐하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름답다는 것은 단지 이것일 따름입니다.”라고 한 군관의 말<sup>11)</sup>에서도 나타난다. 이렇듯 당대에 이미 외면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이라는 대비되는 가치가 공존해 있었던 것이다.

성골에 대한 색공은 진골에 대한 색공으로 나아가고, 진골에 대한 색공은 하급 귀족에 대한 색공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평민 계층은 그러한 색공의 사슬의 기층을 이루었으니, 유화의 존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아름다움이 신라 사회 전반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잡고 여러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8) 『화랑세기』, 제23세 군관, 善德帝嘗於內宴 密謂寶良曰 聞汝嬖兒 其美果何如.

9) 『화랑세기』, 제16세 보종, 如汝者 美也 面若玉膏 脣若赤脂 眼有嬌彩 言有情根者.

10) 같은 곳, 情根多岐 嬌彩易詐 赤脂玉膏 非護身之寶也.

11) 『화랑세기』, 제23세 군관, 軍官曰 臣之美 不在外兒 只在心裡 帝曰 汝心裡 有何美乎 軍官曰 臣願 爲寶良夫妻死 寶良夫妻願 爲陛下死 所謂美者 只此而已.

색공, 사랑, 혼인 등의 관습은 신라 사회의 독특한 신성 관념에서 연유하였다. 동모이부의 남매 사이인 양도와 보량의 혼인 과정에서, ‘신국에는 신국의 도가 있다’<sup>12)</sup>는 말이 나온다. 신의 나라 신라는 고유한 혼인의 방식이 있다는 뜻의 이 말 속에는 사랑과 혼인이 신의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신라인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이 점은 예원이 신라의 혼인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신선(神宣)이라고 대답한 데에서 보다 명확한 표현을 얻고 있다.’<sup>13)</sup> 신선은 신이 선언한 바에 따라 혼인을 행한다는 뜻이다.

『화랑세기』의 저자가 곳곳에서 사랑을 하늘의 뜻에 돌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생각을 전제한 것이다. 예컨대, 황후인 숙명의 사랑이나, 평민 출신의 설성과 사통한 금진의 사랑이나 모두 하늘의 뜻으로 평하고 있다.<sup>14)</sup> 여기서 하늘에 의해 보증되는 것은 성골 및 진골의 신성성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의 왕들은 모두 성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으며, 화랑 역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sup>15)</sup>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신성에 대한 당대인의 사고가 이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세종은 지소태후와 태종(荅宗, 이사부) 사이에서 난 아들로 진흥제에게는 동모이부의 동생이었다. 태종이 알현할 적에 진흥제에게 절한 다음 그 곁에 있던 세종에게 절하자, 세종은 황망히 일어나 아버지를 신하로 여길 수 없다면서 만류하였다. 이에 대해 태종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태종이 놀라 이르기를, “[지소]태후의 신성함은 지아버와 상관없이 신이 됩니니, 전군은 신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찌 감히 신하를 아버라 하십니까?”<sup>16)</sup>

이 말의 내용을 항목화하여 보면 이렇다. 지소태후는 신성하다. 그녀는 지아버와 상관없이 신성하다. 그녀의 아들 세종도 신성하다. 그녀와 관계를

12) 『화랑세기』, 제22세 양도, 神國自有神國道.

13) 『화랑세기』, 제20세 예원, 又問我邦婚道 公答以神宣.

14) 『화랑세기』, 제12세 보리, 세계조 ; 제7세 설화랑조 참조.

15) 『삼국사기』 1권, 신라본기 제1, 시조 8년 ; 시조 53년 ; 별휴니사금 1년 ; 소지마립간 22년 ; 『삼국유사』 1권, 기이 제2, 선덕왕지기삼사 ; 2권 기이 제2, 만파식적 ; 3권 탐상 제4,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

16) 『화랑세기』, 제6세 세종, 荅宗驚曰 太后神聖 不夫而神化 殿君(爲?)神子也 何敢以臣爲父乎.

가진 태종은 신하이다. 임금-신하 관계는 부모-자식 관계보다 우선한다. 이 다섯 항목을 좀더 일반적인 진술로 바꿀 수 있다.

- ① 성골은 신성하다.
- ② 성골은 지아비·지어미와 상관없이 신성하다.
- ③ 성골에게서 난 아들·딸은 모두 신성하다.
- ④ 성골은 황족이고 진골은 신하가 된다.
- ⑤ 골품 관계는 가족 관계보다 우선한다.

『화랑세기』에 나타난 남녀간의 복잡한 관계는 이러한 신성 관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지소태후의 경우, 성골인 입중, 진골인 영실·태종·이화랑, 골품이 낮은 모랑 등과 관계를 가졌고(②), 이들에게서 난 자녀는 모두 왕자·공주, 전군·낭주 등의 호칭이 붙고 신성한 존재들로 인식되었다.(③) 선덕도 용수, 용춘 형제를 비롯하여 흠반, 을계를 남편으로 맞았으며, 양도와 군관을 사신으로 삼았다.(②) 옥진은 길몽을 꾸 다음 남편인 영실이 아닌 법흥제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미실은 세종을 정식 남편으로 두었음에도 진흥-동륜·금륜-진평 등 3대의 황족을 모셨다.(⑤)

이러한 신성 관념은 귀족 사회뿐 아니라 평민층을 포함한 신라 사회 전체에 퍼져 있던 것이다. 낭두와 낭도들이 진골 출신의 화랑들에게 충성을 바쳤고, 그들의 여자들이 화랑들과 성관계를 갖기를 그리도 간절히 원했던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마복자(摩腹子) 제도 역시 성골의 신성성에 대한 관념을 사회 전체에 전파함으로써 골품제를 공고히 하였기 때문에 권장되었던 것이다.

성골의 황족은 살아있는 신이다. 이들이 죽고 나면 신상이 신궁(神宮)에 모셔졌고, 성골을 보필한 진골의 신하들도(④) 신궁 또는 포석사(鮑石祠)에 배향되었다.<sup>17)</sup> 성골과 진골은 혼인과 혈연으로 굳게 맺어져 국가 사업을 함께 추진할 정치 권력의 핵심 집단이었으므로 삶과 죽음을 함께할 수밖에

17) 법흥, 옥진, 아시, 태종의 신상이 신궁에 모셔져 있었고(제12세 보리조), 문노의 신상은 포석사에 모셔졌고 제사는 신궁의 선단에서 행해졌다.(제8세 문노조)

없었던 것이다. 또한, 신궁에서는 전군이나 공주를 책봉하는 의식이 행해졌고, 포석사에서는 진골의 혼인식이 거행되었다.<sup>18)</sup> 골품의 계통을 잇는 의식으로서 혼인 역시 신성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성 관념은 혼인에 이른 사랑뿐 아니라 귀족의 호색 자체에도 적용되었다. 토함은 동생 사다함에게 “사랑이란 곧 하늘이다. 어머니만 홀로 떳떳한 배필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머니 금진을 옹호하였다.<sup>19)</sup> 어느 풍월주보다도 아내와 금슬이 좋았던 흠순이 호색 탐재한 염장에 대해, “호색은 본성이라. 나 또한 네가 아니었으면 마땅히 염장형처럼 되었을 터이다.”라고 하였다.<sup>20)</sup> 결국, 귀족에게 사랑이란 하늘의 뜻에 따라 골품의 신성성을 계승하고 구현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성성의 관념 아래 국가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귀족들의 방탕함도 용인되었던 것이다.

### 2.3. 정절 의식과 ‘큰 사랑’의 이념

신성 관념에서 연유한 사랑일지라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에 따라 제어될 필요가 있었다. 사랑이 신성성 계승과 체제 유지의 사이에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쪽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황종(荒宗, 기칠부)의 딸 윤궁은 원래 동륜태자를 모셔 윤실공주를 낳고 는 태자가 죽은 후 홀로 살았다. 미실이 세종에게 문노의 아내로 윤궁을 추천하였고, 문노의 부제 비보가 윤궁을 설득하였다. 그런데 가야의 공주 소생인 문노는 골품이 낮았기 때문에, 윤궁은 혼인에 따른 다섯 가지 불의(不義)를 들면서 난처해하였다.

문노의 지위가 낮은 까닭에 윤실과는 자식(…)가 끊어지는 것이 (첫째이

18) 『화랑세기』, 제6세 세종조 ; 제12세 보리조. 문노와 윤궁(제8세 문노조), 보리와 만룡(제12세 보리조), 춘추와 문희(제18세 춘추조) 등의 혼인.

19) 『화랑세기』, 제5세 사다함, 色是天也 母可獨無常匹乎.

20) 『화랑세기』, 제19세 흠순, 好色性也 吾亦無汝 則當如廉兄.

다?). 내 마음이 사절(四節)로 충만해 있는데 지위가 낮으면 (...)이 끊어지는 것이 (둘째이다). 진종전군이 3대의 영광스런 자리에 나를 총애하여 이제 늙어 총애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여러 번 사람을 보내 나를 맞아들이려 하는데 정군(貞君)으로써 거절하고 다른 이에게 감이 셋째이다. 아버님께서 재상의 고귀함으로 나를 좋은 귀족에게 시집보내고자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이에게 감이 넷째이다. 금륜태자가 형군(兄君-동륜태자)의 은총을 이어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이에게 감이 다섯째이다.<sup>21)</sup>

윤공의 이 말은 귀족 여자에게 부과된 성 규범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먼저, 셋째 항목에 나온 ‘3대의 영광스런 자리’는 미실이 진흥-동륜·금륜-진평 등 3대에 걸쳐 황제 또는 태자에게 색공한 경우<sup>22)</sup>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법흥제의 아우인 진종은 황제가 되지 못하였으니, 황제의 직계가 아닌, 형제로서 성골에 속한 남자에게 색공하는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또한, ‘정군’을 성골이나 진골의 동정을 깨어 성적으로 계도하는 남자로 본다면,<sup>23)</sup> 이는 동륜태자를 지칭하는 것 같다.

다음, 둘째 항목에 나온 ‘사절’이 주목된다. ‘我之心充四節 而位卑 則絶□□□□’의 빠진 네 글자는 ‘四節 二也’로 볼 수 있다. 인용문에 이어진 ‘이때에 이르러 진종이 죽었으므로 사절의 의리가 끊어졌다.’<sup>24)</sup>라는 기록까지 참조한다면, 문노의 지위가 낮은 것과 진종이 죽은 것이 사절의 의리가 끊어진 이유가 된다. 후에 문노가 골품을 얻었을 때, 윤공이 ‘같은 골품의 님’(同骨之主)을 얻었다고 하였으니, 골품을 얻기 전까지 문노는 윤공의 사신이었을 뿐 정식 남편은 아니었다. 이로 볼 때, 과부 윤공이 사절을 지키려면 재취의 대상이 동골(同骨)의 남자여야 하고, 또 진종에 대한 예의를 갖

21) 『화랑세기』, 제8세 문노, 文弩位卑 故與允實絶子□□□□□□ 我之心充四節 而位卑 則絶□□□□ 眞宗殿君寵我于三代榮席 今老□無可寵 累使人邀我 拒以貞君而他去 三也 父君以宰相之貴 欲嫁我于好貴者 而拒之而他去 四也 金太子欲繼兄君之寵 而拒之而他去 五也.  
 22) 『화랑세기』, 제11세 하종, 后乃以三代之席 薦美室于帝.  
 23) ‘정군’은 ‘정모’(貞母)의 상대어로 생각된다. 13세 진평왕의 성적 혼란을 담당했던 보명과 미실(제22세 양도 세계조)이 정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정군’과 ‘정모’는 성골 및 진골의 동정(童貞)을 깨어 성적으로 계도하는 남자 혹은 여자를 칭하는 듯하다.  
 24) 『화랑세기』, 제8세 문노, 至是眞宗已薨 四節之義 絶焉.

추어야 한다. 진중은 ‘3대의 자리’를 보장해 주고 맞이하려 했지만, 윤궁은 ‘정군’ 동률태자에 대한 절개를 이유로 거절하였다.

결국, 윤궁의 사절이란 3대의 황족과 동골의 남편에 대한 절개를 뜻한다고 하겠다. 이로써 진골 귀족의 여자들은 누구나 3대의 황족에게 색공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대의 황족을 모신 여자로는 미실, 보명, 지도 등이 확인된다. 귀족 여자들의 정절 의식은 이러한 성 규범 아래에서 형성, 유지, 발휘되었던 것이다.

신라 사회가 성적 문란에 빠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정절 의식뿐 아니라 사랑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통된 이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도 윤궁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궁은 미실과 불화하는 문노에게 권문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며 설득하였다. 그러자 문노는 세상의 추이에 따르고 권문에 의지하는 것은 정(情)이고 사(私)인데, 이렇게 되면 의리(義理)가 감추어지고 무리들이 흩어질 것이라며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윤궁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이 아니라면 그대와 내가 어찌 색사로써 [골품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의리는 정에서 나오고 정은 뜻에서 나오나니, [이] 셋은 일찍이 상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정은 의리가 되고 큰 사사로움은 공변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대중에게 사사롭게 대하지 않으면 [그들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니, 그대는 어찌 일찍이 사사로움이 없었다고 하겠습니까? (...) 자기를 손상시켜서라도 좋은 이름을 날리는 것 또한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대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의 순수함이요, 대중이 그대를 믿고 따르는 것은 정의 섞임입니다.<sup>25)</sup>

윤궁은, 왕명으로 문사들을 모아 『국사(國史)』를 편찬한<sup>26)</sup> 황종의 딸이다. 아버지의 인문학적 소양이 딸인 윤궁에게 교육되었을 법한데, 과연 위 인용

25) 같은 곳, 非情 則君與我 安可以色事相犯乎 夫義出於情 而情出于志 三者未嘗相反也 故曰 大情爲義 大私爲公 若不私于衆 則無以收也 君何嘗無私乎 (...) 損己而好名 亦出乎私也 君與我相愛者 情之純也 衆之倚君 情之錯也

26) 『삼국사기』 44권, 열전 제4, 거칠부 참조.

문에 윤공의 인문 정신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지(志)-정(情)-의(義)’의 계기적 관계로부터 ‘대정(大情)=의(義), 대사(大私)=공(公)’임을 주장하였고, 남녀의 사랑은 정의 순수함,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정의 섞임, 곧 정에 의리가 섞인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인간이 지닌 본성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익과 의리가 개인의 본성과 의지로부터 실현됨을 말한 것이다.

‘큰 정’(大情)과 ‘큰 사사로움’(大私)의 이념은 ‘큰 사랑’(大愛)의 이념으로도 표현되었다. 아래는 동모이부의 누나 보량과 혼인한 양도의 말이다.

생사를 한 구덩이에서 할 것이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제가 들으니, ‘큰 사랑은 공정함이 신과 같고, 작은 사랑은 희롱하기가 구슬 같다.’고 합니다. 저는 큰 사랑으로써 그대와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지 큰누님으로 여겨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sup>27)</sup>

부부의 사랑도 신을 공정하듯 해야 한다는 ‘큰 사랑’의 이념이 피력되었다. 사랑의 감정이 신성성에 바탕한 사회 윤리의 차원으로 고양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신라 사회가 사랑에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성한 골품의 유지·계승을 전제로 열렬한 사랑이 긍정되고, 때로는 방탕으로도 흘렀지만, 정절 의식과 큰 사랑의 이념으로 제어된 사랑인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골품제 사랑’이라 일컬을 만하다. 이는 서양의 ‘공정식 사랑’, ‘낭만적 사랑’ 등의 역사적 개념에 대비되는 신라 사회의 사랑의 양식인 것이다.

### 3. 신라 귀족 사회의 사랑과 향가

『화랑세기』에 수록된 <송사다함가>와 <칭조가>는 진골 귀족인 미실

27) 『화랑세기』, 제22세 양도, 生死同穴 豈有不愛之理乎 吾聞 大愛敬之如神 小愛弄之如玉 吾欲以大愛同君 非以爲長姊而然也.

과 사다함이 지었으므로 앞서 살핀 귀족 사회의 성 관습과 성 관념을 적용하여 논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삼국유사』의 향가들은 설화적으로 윤색된 배경기사 외에는 달리 역사적 맥락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화랑세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들 작품의 현실적, 일상적 문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 3.1. 내부인의 작품 - 〈송사다함가〉, 〈청조가〉

출정하는 사다함을 송별하면서 지은 미실의 <송사다함가>와, 전쟁에서 돌아와 미실이 입궁한 사실을 알고 비탄에 젖어 지은 사다함의 <청조가>를 귀족 사회의 사랑의 관습과 의식의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風只吹留如久爲都	바람이 분다고 해도
郎前希吹莫遣	낭 앞에 불지 말고
浪只打如久爲都	물결이 친다고 해도
郎前打莫遣	낭 앞에 치지 말고
早早歸良來良	어서 어서 돌아와서
更逢叱那抱遣見遣	다시 만나 안아 보려니와
此好郎耶鞅音乎手乙	이 좋은 낭이 움켜쥔 손을
忍麼等尸理良奴	차마 갈라지게 하려나?

전쟁터로 떠나는 님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시적 화자는 ‘바람과 물결’(風浪)을 끌어 왔다. 『화랑세기』에는 김춘추가 당에 사신갈 때 풍랑이 일었던 예가 있다.<sup>28)</sup> 『삼국유사』에도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바닷길 왕래시 일어난 풍랑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sup>29)</sup> 바다의 풍랑은 신라가 대외관계를 가질 때 사신 행렬이 부닥치게 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였던 것이다.

28) 『화랑세기』, 제20세 예원, 途遇風浪 舟人以爲女可入海 公拒之.

29) 『삼국유사』 2권, 기이 제2, 만과식적, 風定波平; 진성여대왕거타지, 風濤大作; 3권 탐상 제 4, 금관성과사석탑, 波神之怒; 민장사, 海中風飄; 전후소장사리, 海風忽起.

이 시에 쓰인 풍랑도 대가야 정벌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따른 고난과 위험을 뜻한다. 귀족의 일원으로서 미실은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님을 위해 국가적 범위에 적용될 만한 상징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님이 전쟁의 와중에서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를 바랐다. 국가에 속한 개인이 기 이전에, 개인 대 개인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고의 표현이라 하겠다.

제6행에서 님을 ‘안아 보다’라는 말이 쓰였다. 이는 사랑의 포옹 행위를 뜻하는데, 『화랑세기』의 여러 곳에 나오는 표현이다. 자기를 누나로만 대접한다고 화내는 보랑을 양도가 웃으며 안고 달래었다. 미실은 원화가 되어 남도의 의식을 거행하면서 기쁨에 겨워 진흥제의 품에 애교스럽게 안겼고, 또 자기의 두 아들이 동시에 전군이 되는 예식에서 진흥제에게 엮어질듯 안겼다. 염장은 마루에서 예원을 맞이할 때 첩을 안고 있었다.<sup>30)</sup> 남녀가 서로 안는 행위가 공적, 사적 공간에서 스스럼없이 행해졌던 것이다.

극적인 상황에서 사랑의 포옹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숙명과 이화의 사랑 이야기에서, ‘부월이 앞에 있고 목숨이 짧은 순간에 달렸으나,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안고 굴하지 않았다.’<sup>31)</sup>라고 하였다. 죽음이 임박한 사다함을 안고 이화가 애통해하는 장면<sup>32)</sup>은 비극적이다. 귀족 사회에 친숙한 포옹의 문화는 화랑이 낭도들을 아끼고 사랑함을 ‘품다’(懷)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였다.<sup>33)</sup>

이렇듯 포옹은 귀족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일상의 문화 요소이다. 따라서 님과 재회할 때 포옹으로 맞이하겠다는 표현은 매우 자연스런 것이다.

靑鳥靑鳥	청조야, 청조야,
彼雲上之靑鳥	저 구름 위의 청조야,
胡爲乎	어찌하여
止我豆之田	내 콩밭에 머무는고?

30) 『화랑세기』, 제22세 양도, 公笑而抱寶良而慰之; 제6세 세종, 美室完轉入懷; 제11세 하중, 美室喜極而仆于帝懷; 제20세 예원, 公累爲公召而謁于堂則公擁妾而坐.  
 31) 『화랑세기』, 제12세 보리, 세계, 斧鉞在前命如寸髮猶能抱愛不屈.  
 32) 『화랑세기』, 제6세 세종, 臨卒二花公抱以哀之.  
 33) 『화랑세기』, 제4세 이화랑, 太后乃召宮中賜食問其懷人之道; 제8세 문노, 愛下如己不拘清濁歸之者盡懷之; 제7세 설화랑, 美室常以珍寶下賜之物以遺薛原曰毋自有以懷汝郎徒也.

靑鳥靑鳥	청조야, 청조야,
乃我豆田靑鳥	이내 콩밭의 청조야,
胡爲乎	어찌하여
更飛入雲上去	구름 위로 되날아 들어가는고?

既來	이미 왔으면
不須去	가지나 말지
又去	또 가려거든
爲何來	무엇 하러 와서는,
空令人	공연히 사람으로
淚雨	눈물이 비 오듯 하고
腸爛瘦	애타고 말라
死盡	다 죽게 하는고?

(爾)死	(너) 죽으면
爲何鬼	무슨 귀신 되려나?
吾死爲神兵	나 죽어 신병 되어
飛入殿務(凜) / (裡)	전무(殿務) 씩씩한 속에 날아들어,
朝朝暮暮	아침마다 저녁마다
保護殿君夫妻	전군부처 보호하여
萬年千年	천년만년 동안
不長滅	길이 사라지지 않으리.

첫째 연에서 미실을 지칭하는 청조가 ‘나’의 ‘콩밭’에 왔다가 다시 ‘구름 위’(雲上)로 날아 들어감을 한탄하였다. 『화랑세기』에 나오는 운상은 상대어를 지닌 말이다. 문노와 설원의 낭도를 비교하면서 전자는 ‘호국-무사·협기-초택’으로, 후자는 ‘운상-향가·청유-골품’으로 구분하였다.<sup>34)</sup> 또한,

34) 『화랑세기』, 제7세 설화랑, 文弩之徒 好武事多俠氣 薛原之徒 善鄉歌好清遊 故國人指文徒爲 護國仙 指薛徒爲雲上人 骨品之人 多從薛徒 草澤之人 多從文徒.

‘상선들은 운상에서 의논하였고 3파는 막하에서 다투었다.’라고<sup>35)</sup> 하여 운상이 ‘상선’과 관련되고, 그에 대비되는 ‘막하’가 나온다. 곧, 골품 있는 화랑들이 속한 계층 및 거주 공간이 운상이고, 그들이 즐기는 것이 향가와 청유인 것이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운상에 대비되는 공간으로 콩밭이 나왔다. 사다함이 상으로 불모지를 받고는 “이 정도가 사람을 부지런하게 할 만하다. 나라에 (….)하고, 일이 없으면 농사를 짓는 것이 곧 우리 무리의 (….)이다.”<sup>36)</sup>라고 한 말에서의 농사의 터전이 곧, 이 시의 콩밭에 해당할 것이다. 보종이 선도를 닦으면서 늘 콩죽을 먹었다고 하였는데,<sup>37)</sup> 국선인 사다함이 콩밭을 일구어 콩죽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콩밭은 호국을 위한 일이 없는 평상시에 행하는 농사일의 터전, 일상생활의 터전을 뜻하는 말로 볼 수 있다.

둘째 연은 떠나간 님이 그리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시적 화자의 심정을 읊고 있다. 『화랑세기』에는 상대를 열렬히 그리워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윤공은 문노에 대해 ‘내가 그대를 사모함이 오래되어 이미 애가 끊어질 지경이시오.’라고 하였고, 미실이 진흥제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연앵(燕鶯)의 교태가 더욱 처절하였다.’라고 하였다.<sup>38)</sup> 숙명은 이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자살하고자 하였고, 이화 역시 그리하여 궁궐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귀족들은 정감이 풍부하여 사랑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까지 하였던 사람들이었다. 둘째 연의 절절한 호소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미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사다함은 결국 죽고 마는 것이다.

셋째 연에서는 죽어서 신병이 되어 미실과 세종 부부를 영원토록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당대인의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할아버지 아시와 외할머니 옥진을 수호신으로 모신 미실의 예에서 보듯이,<sup>39)</sup> 귀족들은 조상신 중에서 개인 수호신을 삼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공적 혹은

35) 『화랑세기』, 제22세 양도, 郎頭多以情私發登 政事多出專橫 上仙議于雲上 三派爭于幕下.

36) 『화랑세기』, 제5세 사다함, 此足以令人勤也 國□□□□□□□□ 無事則入農 是吾徒□□□□□.

37) 『화랑세기』, 제16세 보종, 常餐豆粥 不喜食肉.

38) 『화랑세기』, 제8세 문노, 允宮曰 妾慕君久矣 腸已斷矣 ; 제11세 허중, 燕鶯之態 益復悽絕.

39) 『화랑세기』, 제12세 보리, 美室以阿時公玉珍宮 爲其護神.

사적으로 신궁, 사당, 능묘 등에 나아가 참배하였다. 그러므로 죽어서 전군 부처의 신병이 되겠다는 다짐은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고귀한 세종과 그의 배필 미실의 수호신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신병은 될 수 있다고 믿고 다짐한 것이었다.

이 다짐 속의 ‘보호’라는 말도 당대인의 생활과 관련된다. 화주와 풍월주, 상급 화랑과 하급 화랑, 화랑과 낭두·낭도 등이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중 군관이 양도·보랑 부부를 위해 죽기를 원한다고 한 말<sup>40)</sup>이 여기서의 다짐과 흡사하다. 사다함과 군관은 무사로서의 호위, 즉 미실에 대한 설원, 용춘에 대한 대남보의 경우처럼 수호병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듯 시에 나타난 다짐 속에 무장으로서 시적 화자가 지닌 기상과 절개가 담겨 있다.

요컨대, 미실의 <송사다함가>와 사다함의 <청조가>는 귀족 사회에서 일반화된 개인 간의 친밀한 사랑, 포용 문화, 화랑의 일상 터전, 열렬한 그리움의 정서, 개인별 수호신을 모시는 신앙생활, 상하 간에 서로 보호해 주는 무사적 기풍 등이 반영된 향가 작품이다.

### 3.2. 외부인의 작품 - 〈서동요〉, 〈헌화가〉, 〈처용가〉

사랑의 향가인 <서동요>, <헌화가>, <처용가>는 모두 골품 위주의 신라 귀족 사회 외부에 있던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 서동은 백제 사람이고, 소를 끌고 지나가던 노인은 지방민이며, 처용은 바다에서 온 외래자이다. 그러면서도 세 작품은 어떤 방식으로든 귀족 사회와 연관을 맺고 있다. 진평왕의 셋째 공주인 선화, 순정공의 아내인 수로, 헌강왕이 처용에게 사급한 처용 처는 골품을 가진 귀족 여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귀족 사회 외부의 시적 화자가 내부의 인물과 맺는 관계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善(花) 公主니문  
 님 그스기 어러두고,

선화 공주님은  
 남 그육이 성숙해 있다가,

40) 『화랑세기』, 제23세 군관, 臣願爲寶良夫妻死.

맛동 바올  
바딤 물 안고거다.

맛동이 서방을  
밤에 무턱 안을 거다.

『화랑세기』는 <서동요> 해석에서 신라와 백제의 혼인 관계 및 선화공주의 실존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자료이다. 『삼국사기』에는 493년과 553년에 소지왕과 동성왕, 진흥왕과 성왕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sup>41)</sup> 그런데 『화랑세기』는 이 즈음에 법흥이 백제에 들어가 보과공주와 사통하였고, 보과가 신라 궁중에 들어와 남모와 모랑을 낳았다고 하였다.<sup>42)</sup> 남모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원화제도 폐지의 원인이 되었던 인물이다. 법흥왕의 재위 기간이 514~540년이므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493년의 혼인은 법흥과 보과의 사통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로 볼 수 있다. 곧, 보과공주가 법흥과 사통한 후 신라로 도망하자, 백제 동성왕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신라에 요구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국공의 신분으로 법흥이 백제에 들어갔고 백제의 공주가 도망하여 신라 궁실로 들어왔다는 점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경우를 연상시킨다. 신라인과 백제인이 교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서로 유사한 사례일 수 있다. 이는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진평왕의 셋째 딸로서 선화공주가 실재하였을지도 문제이다. 『화랑세기』에 선화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천명, 선덕, 천화, 호명 등 진평제의 네 공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sup>43)</sup> 천명이 맏딸이고 선덕이 둘째이며, 그 아래로 천화와 호명이 있다. 호명에는 ‘-궁’이 붙었으나, 황제의 명으로 용춘과 혼인하였고 ‘천명-호명’의 계열을 이루는 이름이므로 공주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천화와 호명의 서차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셋째 공주가 선화라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화랑세기』의 이름들 속에 선화를 넣어 보면, ‘천명-선덕-(선화)-천화-호명’의 계열을 이룬다. 이렇게 볼 때, 비록 『화랑세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셋째 공주일 가능성

41)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2 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해당 연도 참조.

42) 『화랑세기』, 제3세 모랑, 法興大王 以國公入百濟 與寶果公主有私 後寶果逃歸入宮 生南毛毛郎.

43) 『화랑세기』, 제13세 용춘조 참조.

이 있다.

위의 두 가지 점을 통해 <서동요>의 배경기사가 역사적 사건에 토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 내용도 당대의 일상적 삶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 예로 외래인인 시적 화자가 귀족 사회의 성적 관습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품 말미의 ‘안다’(抱)라는 어휘를 선택한 것이다. 안는 행동을 성행위의 뉘앙스를 풍기도록 교묘히 사용함으로써 선화공주와 관련된 성적인 풍문을 퍼뜨리는 데 성공하였다. 성골인 선화공주는 언니들인 천명과 선덕이 진평제의 후사를 잇는 일에 몰두한 데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실제로 서동과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는데, 평소의 행동이 빌미가 되어 결국 서동의 계략에 말려들게 되었을 것이다.

선화공주는 성적인 풍문 때문이라기보다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둘째인 선덕이 출중하였기에 첫째인 천명공주가 제위를 양보하고 출궁한 것과 유사한 이유로 출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시의 내용으로 보아, 출궁한 이후에 서동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달빛 바호 갖혀	자춧빛 바위 가에
웁은 손 암소 노히시고	웁킨 손에서 암소를 놓게 하시니,
나홀 안디 붓그리시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홀 것가 바도라—다.	꽃을 꺾어 바치리이다.

<현화가>는 수로부인에 대해 ‘자태와 용모가 당대에 뛰어나서 매번 깊은 산 큰 못을 지날 때면 누차 신물에게 피랍되었다.’<sup>44)</sup>라고 기술한 배경기사와 함께 전한다. 수로의 아름다움에 대해 예찬하면서 아름다움과 신성성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는 귀족들의 사랑에 대한 관념과 상통한다. 역사적 사건이 설화화하면서 아름다움과 결합된 신성성의 측면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김순정과 그의 부인 수로는 성덕왕대 최고의 진골 귀족이었다. 그들 부

44) 『삼국유사』 2권, 기이 제2, 수로부인, 姿容絶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

부가 강릉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 속에서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이 시를 지었다. 노인은 지방민으로서 서라벌 귀족의 화려한 행차와 수로부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경탄하였다. 그 경탄은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만나는 지점에서 숭배에 가까운 감정으로 나아갔다.

이에 노인이 꺾어 바친 꽃은 아름다움과 신성성이 복합된 의미를 담게 된다. 귀족에 대한 찬미는 통치 세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것은 왕통의 신성성에 대한 경배로 연결된다. 지방민으로서는 서라벌 귀족의 행차가 그러한 신성성의 후광을 입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성한 빛이 진골 귀족의 행차를 통해서 지방에 비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민인 시적 화자는 서라벌 귀족이 자신 및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화랑세기』에는 귀족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나온다. 미실은 세종의 원비(元妃)의 첩이 됨을, 묘도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아들 미생이 아랫사람을 포용하지 못함을, 만룡은 풍월주와의 성적 결합인 남도의 의식을 치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였다. 묘도의 경우처럼 귀족이 평민이나 노비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함을,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수로부인에게 기대한 것일 터이다.

東京 불기 드라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사 자리 보곤  
 가로이 네히어라.  
 두볼흔 내 해엇고  
 두볼흔 누기 해언고?  
 아이 내 해다 마는  
 아살 엇더다 흐리고?

동경 밝은 달에  
 밤들도록 놀며 다니다가,  
 들어서 자리 보니  
 가랑이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가?  
 본래 내 것이다마는  
 빼앗아 옴을 어떻게 하리오?

<처용가>는 신라 하대인 현강왕대에 서라벌 내에서 벌어진 성적 스캔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라 중대의 기록인 『화랑세기』에 나오는 최대의 스캔들은 동륜태자가 보명과 은밀한 관계를 가졌다가 큰 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다. 이 일은 큰 옥사를 일으켜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만한 사건이었으나, 사도황후의 간청과 미실에 대한 진흥제의 미련 때문에 덮여졌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스캔들을 거론할 수 있다. 설원은 처 준화가 데려온 딸 준모와 간통하였는데, 미실이 도와주어 겨우 일을 수습하였다. 낭두 찰의는 양도의 화주 보량을 범하였다가 양도의 부제 군관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 진공은 계교를 써서 보로전군의 처 흠신과 사통하고 결국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

세 사건은 계부가 딸을, 낭두가 화주를, 화랑이 전군부인을 간통한 것으로서, 귀족 사회의 성 규범에 저촉되는 불미스런 사건들이다. 이는 처용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처용이 6두품 이상이 오를 수 있는 급간의 직품을 얻은 것으로 보아, 사급 받은 아내는 적어도 6두품보다 높은 귀족 여자일 것이다. 국왕에 의해 보장된 부부 관계는 처용 처에 대한 외간남자의 겁탈, 혹은 처용 처와 외간남자의 간통에 의해 깨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세 스캔들은 각각, 그 딸을 다른 남자와 혼인시킴으로써, 화랑이 낭두를 처벌함으로써, 전임 화주가 덮어두자고 설득함으로써 수습되고 있다. 주변의 유력한 인물이 개입하여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처용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보고 있다. 처용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임으로써 처용 처를 겁탈 또는 간통한 남자의 행복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처용이 외래자로서 신라 궁중에서의 지위가 공고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된다.

처용은 국왕을 위시한 귀족 사회의 도움으로 서라벌에 정착하고자 한 인물이다. 그러한 정착 의지가 처용 처의 겁탈 또는 간통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 다른 귀족처럼 계통과 배경이 든든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했다. 고독한 외래자로서 그가 귀족 사회의 부조리와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 점이 전승 과정에서 설화적으로 강조됨으로써, 결국 처용은 문신(門神)으로 받아들여졌으리라 생각된다.

#### 4. 결 론

『화랑세기』 속에는 신라 중대 귀족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랑의 사건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외설스럽고 난잡할지 모르지만, 당대의 성 관습과 성 의식에 따라 이루어진 자연스런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고찰하여 당대 사랑의 일상적 면모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현존 향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화랑세기』에 기술된 사랑은 그 편폭이 넓고 다양하다. 어떤 이는 사랑에 탐닉하다가 파멸하고, 어떤 이는 사랑 자체에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현재 우리에게 아주 낯선 것부터 수긍되는 것까지 다양한 성 관습이 나타나 있다. 신라 사회에서 성골의 신성성은 절대적으로 신봉되었고, 성골과 정치적, 혈연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진골 귀족들도 신성하게 여겨졌다. 성골에 대한 진골, 진골에 대한 하급 귀족, 하급 귀족에 대한 평민의 색공 등, 색공의 사슬로 엮어진 신라 사회는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해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러면서도 체제가 유지된 것은 신성성의 계승을 위한 정절 관념 및 사회적 윤리와 결합된 ‘큰 사랑’의 이념이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골품제 사랑’이라는 용어로써 요약할 수 있다.

사랑의 향가 중에서 <송사다함가>와 <청조가>는 귀족 사회의 내부인이, <서동요>, <현화가>, <처용가>는 외부인이 지었다. 전자에는 친밀감, 포용, 일상 터전, 열정, 신앙심, 무사풍 등 귀족들의 성 관습과 의식이 나타나 있다. 외부인이 지었지만 귀족 사회와 관련된 후자의 작품들에도 포용, 정치적 관계, 신성과 결합된 미감, 아랫사람을 대하는 귀족의 태도, 사랑의 스캔들, 외래자로서의 위상 등이 그려져 있다. 향가 속에 당대 사랑의 문화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써 향가가 당대의 일상적 삶을 반영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상식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화랑세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단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와 병행하여, 이를 활용한 향가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감교원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삼국유사』, 역주본, 이화문화사, 2002.  
『화랑세기』, 모본 및 탈취본(필자가 지닌 복사본).
-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이종욱 역주해, 『화랑세기』, 소나무, 1999  
\_\_\_\_\_,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_\_\_\_\_, 『화랑』, 휴머니스트, 2003.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2 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노태돈,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 『역사학보』 147, 역사학회, 1995, 325~362면.  
신재홍, 「미실과 사다함, 송사다함가와 청조가」,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239~265면.  
\_\_\_\_\_, 「화랑세기에 나타난 화랑의 이념과 향가」, 『겨레어문학』 34, 겨레어문학회, 2005, 225~264면.



Love in Noble Society of the *Shilla* and Dailiness of *Hyang-ga*

Shin, Jae-hong

This paper is an investigation of the dailiness of *Hyang-ga* through the new document of the *Shilla*'s history, *Hwarangsegi*. The noble classes' intensive passion for love is well documented in *Hwarangsegi*. The noblest classes were worshiped as gods by people. The love acts in noble society were encouraged for reasons of maintenance and succession of the divinity.

From perspective of social hierarchy, upper classes were serviced sexually by lower classes. The society's network was built on sex services. Everyone in the Dynasty admired beautiful women and men, so beauty held the highest value. This indulgence in sex could not break the society's order. Because noble classes held fidelity to the divinity of the royalty and idea of great love which was combined with social morals.

*Hyang-ga* could be explained by conventions and consciousness of love in that age. *Songsadabam-ga* and *Cheongjo-ga*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love conventions of a noble society. Though *Seodong-yo*, *Heonbua-ga*, and *Cheoyong-ga* were authored by those who did not belong to a noble society, they nevertheless show the same love conventions. In addition to love conventions, the distinctiveness of daily life of *Shilla* is reflected in *Hyang-ga* works.

Keywords : love, sex service, beauty, divinity, great love, love conventions

접수일자 : 2006. 3. 17 심사기간 : 2006. 4. 7~2006. 4. 28 게재결정 : 2006. 5. 16
---

к с і

к с і